

# 지도자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이사야서의 영 신학: 11:2; 42:1, 5; 59:21; 61:1의 통합적 고찰\*

김주현(한세대)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대 간, 이념 간, 계층 간 대립이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성서는 어떤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영(רוח/루아흐)에 관한 연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일하시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는 기원전 수 세기에 걸쳐 전쟁과 패망, 포로와 귀환, 심판과 회복이라는 상이한 역사적 국면을 포괄하는 예언서로서,

\* 이 논문은 2025년 10월, 제26차 한국오순절신학회 학술발표회 및 제1회 한세대학교 오순절 신학포럼에서 발표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에 대해 논찬해 주신 이사야 박사(남서울대)와 질의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분열과 상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를 어떻게 새롭게 하고 통합으로 이끄는지를 집약적으로 증언한다. 따라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탐구하는 일은 오늘날의 갈등과 단절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

본 연구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지도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주제로 삼아, 네 본문(사 11:2; 42:1, 5; 59:21; 61:1)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sup>1</sup>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영이 단순히 개인에게 카리스마적 능력을 부여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는 사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특별히 오순절 신학자 마원석은 하나님의 영을 개인의 체험이나 일시적 능력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향한 은사로 이해한다. 그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초기에는 소수의 지도자에게 집중되지만, 점차 공동체 전체, 나아가 민족적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보았

---

1 이사야서의 루아호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문을 정경적 순서에 따라 고정한 뒤, 루아호의 용례를 분류하는 기초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는 본문에 나타나는 루아호의 다층적 의미망을 파악하고, 특히 '하나님의 영' 본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사야서에서 51회 등장하는 루아호(רוּחַ/루아호)를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 '바람'으로서의 은유적 표현이다(7:2; 17:13; 26:18; 32:2; 40:7; 41:16, 29; 57:13; 64:5). 둘째, '인간의 영'으로, 인간의 쇠약하거나 방황하는 영을 가리키는 본문들이다(19:3, 14; 25:4; 26:9; 29:24; 33:11; 38:16; 54:6). 셋째, '하나님의 영'으로, 이는 다시 네 범주로 세분할 수 있다. (1) 심판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적 목적의 영(29:10; 37:7), (2)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수단적 용례(4:4[2회]; 11:4, 15; 27:8; 28:6), (3) 인간 안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57:15[2회], 16; 61:3; 65:14; 66:2), (4)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하나님의 영(11:2[4회]; 30:1, 28; 31:3; 32:15, 16; 40:13; 42:1, 5; 44:3; 48:16; 59:19, 21; 61:1; 63:10, 11, 14)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루아호가 '주체'로 나타나는 구절(30:1; 31:3[아웨=영], 30:28; 40:13; 48:16; 59:19; 63:10-14[구원의 주체로서의 영], 34:14[창조의 주체로서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수여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루아호에 주목한다. 특히 '부어 주다'(32:15; 44:3)라는 동사와 연결되지 않고, '머물다'라는 동사와 결합하거나 명사문장으로 존재의 상태를 드러내는 본문 가운데, 지도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묘사하는 네 본문(사 11:2; 42:1, 5; 59:21; 61:1)에 집중한다.

다.<sup>2</sup>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 연구들에서 더욱 확장되는데, 최근 연구에서 토르스텐 울리히(Torsten Uhlig)는 이사야서를 “완고함”(Verstockung)의 주제로 읽으면서,<sup>3</sup> 야웨의 심판과 회복이 “관계적 정의”(connective righteousness)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sup> 그는 이사야 6장의 소명 기사, 곧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사 6:10)는 신탁을 하나님의 징계이자 동시에 구원의 역설로 해석한다.<sup>5</sup> 이 맥락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완고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다.<sup>6</sup>

이 두 견해는 상호 보완적이다. 마원석의 ‘공동체적 영’과 울리히의 ‘관계적 정의’ 개념은 이사야서의 지도자에게 임한 영 신학이 단순한 개인 체험을 넘어 공동체의 재형성과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시각을 바탕으로 이사야서의 네 본문을 분석하여, 야웨의 영이 어떻게 지도자에게 회복과 통합의 사명을 부여하고, 분열과 완악함을 극복하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이 책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 연구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이다. Wonsuk, Ma, *Until the Spirit Comes: The Spirit of God in the Book of Isaiah* (JSOTSup. 27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212.

3 Torsten Uhlig, *The Theme of Hardening in the Book of Isaiah: An Analysis of Communicative Action* (FAT II/39; Tübingen: Mohr Siebeck, 2009), 29-72.

4 울리히는 “관계적 정의”를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나 법적 지위로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하는 힘으로 정의한다. 그는 이사야서를 야웨와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읽으며, “완악함” 또한 이러한 “관계적 정의”와 긴밀히 맞물린 개념으로 이해한다. 곧 백성의 완악함은 관계 단절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정의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조. 윗글 (2009), 56 이하. 특히 제4장에서 개념을 정의한 후 그 관련성을 논의한다.

5 T. Uhlig, 윗글 (2009), 2.

6 T. Uhlig, “Der Geist Gottes im zweiten Teil des Jesajabuches,” B. Schließer/R. Feldmeier/J. Frey/S. Urech, (eds.), *Geist: Phänomenologie-Religionsgeschichte-Theologie* (WUZNT; Tübingen: Mohr Siebeck, 2025), 287-321.

## 2.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영 연구사 개관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영(רוּחַ/루아흐)에 대한 초기 연구는 연구량 자체가 제한적이었고, 주로 구약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연구 속에서 이사야서의 영 본문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sup>7</sup> 연구는 대체로 본문을 역사적 시기(전기·포로기·포로후)나 문학 유형에 따라 분류하거나, 인류학적·어휘학적·구원사적 틀 안에서 영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이사야서의 영 본문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 개념 논의의 일부로 다루어졌을 뿐, 이사야서 자체의 문맥과 구조 속에서 일관되게 추적되지는 않았다.

이 연구들 가운데 다니엘 리스(Daniel Lys)<sup>8</sup>와 로이드 니브(Lloyd Neve)<sup>9</sup>는 영 개념을 바람·사람의 영·하나님의 영으로 나누어 규정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루아흐를 ‘숨’이나 생명 원리로 이해하는 데 집중하였다. 레온 우드(Leon J. Wood)<sup>10</sup>의 연구는 성령에 대한 신약적·현대적 관심을 전제한 선택적 논의로 특징지어지며, 영 전통의 기원이나 역사적 전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로버트 코흐(Robert T. Koch)<sup>11</sup>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이해하고, 특히 메시아적 시대와 관련하여 이사야

7 최근 구약의 루아흐 연구에 대해서는 Reed Carlson, “Ruah in the Hebrew Bible: A Survey of Past Scholarship,” *CBR* 22/2 (2024): 115-132; 김도형, “구약의 루아흐(ruah)와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의 중요성,” 「구약논단」 94 (2024): 48-72를 참고하라.

8 D. Lys, ‘Ruach,’ *Le souffle dans l’Ancien Testament: enquête anthropologique à travers l’histoire théologique d’Israël, Etudes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56;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9 로이드 R. 니브, 「구약의 성령론」 (차준희/한사무엘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원제는 L. Neve,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okyo: Seibunsha, 1972).

10 L. J. Wood,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6).

11 R. Koch, *Der Geist Gottes im Alten Testament* (Frankfurt am Main u.a.: Peter Lang, 1991).

11장, 42장, 61장 등 주요 본문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만프레드 드라이차(Manfred Dreytza)<sup>12</sup>는 어휘·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고대 근동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며, 영 개념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였고, 윌프 힐데브란트(Wilf Hildebrandt)<sup>13</sup>는 창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언이라는 개념적 범주로 본문을 분류하는 정경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서로 다른 전통과 본문을 하나의 개념 틀 아래 병치하는 데 머물렀고, 이사야서 안에서 영의 역할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본문 간 연관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연구사적 상황 속에서 마원석의 연구는 하나의 분명한 전환점을 형성한다. 마원석은 구약 전체의 영 전통을 개념사적으로 정리하면서, 영 개념이 단일한 기원이나 의미로 환원될 수 없고, 다양한 기능과 전통이 병존함을 분명히 하였다.<sup>14</sup> 그는 영을 하나님의 인격과 분리된 독립 주체로 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과 세계 안에서 관계 맺는 방식으로 현현되는 신적 요소로 규정하였다.<sup>15</sup> 특히 카리스마적 전통과 비카리스마적 전통의 구분을 통해, 영이 특정 인물에게 임하여 인증과 사역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과 공동체 및 창조 질서 전체에 작용하는 기능을 구분하였다.<sup>16</sup> 이와 같은 정리는,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영을 단순한 능력 개념이나 일반적 신적 작용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영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

12 M. Dreytza, *Der theologische Gebrauch von RUAH im Alten Testament: Eine wort- und satzsemantische Studie* (Dasel: Brunnen, 1992).

13 윌프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 신학 입문」 (김진섭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5). 원제는 Hildebrandt, W.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5).

14 W. Ma, *윗글* (1999), 27.

15 *윗글* (1999), 31-32.

16 *윗글* (1999), 207-208.

하는가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연구사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덧붙여 휴 윌리엄슨(Hugh G. M. Williamson)<sup>17</sup>은 이사야서의 세 인물인 왕(11장), 종(42장), 메시아(61장)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지도자상’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었다. 그는 이사야서가 역사적·문학적으로 독립된 예언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선택된 지도자”라는 주제의 변주곡(variations on a them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sup>18</sup> 즉, 11장과 42장, 61장은 모두 동일한 신학적 선율(영의 임재)을 각 시대적 상황과 인물 형상 속에서 변주한 것이다.<sup>19</sup>

여기에 존 레비슨(John R. Levison)은 이사야 59장과 61장의 언어적·신학적 평행을 강조하며, 야웨의 영이 ‘지도자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확장된 신학적 단계로 발전했다고 보았다.<sup>20</sup>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 오히려 또한 전통적인 11장-42장-61장의 삼중 구조를 넘어, 이사야 59장 21절을 결합점으로 재조명한다.<sup>21</sup> 오히려 제2이사야의 결론부(사 59:21)가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라는 구절을 통해 ‘영-말씀-언약’의 삼중 구조를 드러낸다고 분석하였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의 종 선언(“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결합하여 구원 사역을 지속시키는 원리를 제시한다.

---

17 H. G. M. Williamson, *Variations on a Theme: King, Messiah and Servant in the Book of Isaiah* (Carlisle: Paternoster, 1998).

18 윗글, 203-208.

19 이와 비슷하게 A. T. Abernethy, *The Book of Isaiah and God's Kingdom: A Thematic-Theological Approach*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6); 최윤갑,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이 행한 사역의 목적: 메시아 사역자 본문(11, 1-5; 42, 1-4; 61, 1-3)을 중심으로,” 『구약논집』 15 (2019): 136-174.

20 J. R. Levison, *Filled with the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2009), 108.

21 T. Uhlig, 윗글 (2025), 308, 317-318.

이처럼 최근 연구들은 더 이상 11장-42장-61장의 삼중 구조 만으로 지도자적 영의 계열을 한정하지 않는다. 레비슨과 울리히 그리고 윌리엄 브라운(William P. Brown),<sup>22</sup> 슈테판 펠버(Stefan Felber)<sup>23</sup> 등의 분석에서도 이사야 59장 21절이 ‘말씀과 영의 연합을 통한 언약의 영속성’으로 해석되며, 이사야 61장의 중 본문과 신학적으로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지도자에게 임한 영’은 왕적·메시아적 카리스마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구현하는 영의 형태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영을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를 넘어, 말씀과 결합하여 언약과 정의를 지속시키는 신학적 원리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에서 루아흐의 용례를 정경적 순서에 따라 분류하고, 그 가운데 지도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본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 11:2; 42:1, 5; 59:21; 61:1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사명과 그 신학적 지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 3. 지도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 1) 성품을 형성하는 영: 이새의 새싹 위에 머무는 영(사 11:2)

이사야 11장은 앗수르 제국의 몰락(사 10:33-34)과 새로운 통치자의 도래(사 11:1-5)를 하나의 서사 흐름으로 엮는다. 잘린 그루터기에서

22 W. P. Brown, *The Ethos of the Cosmos: The Genesis of Moral Imagination in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99).

23 S. Felber, “Wer Spricht in Jesaja 61,1-3?” *Jahrbuch Für Evangelikale Theologie* 25 (2011): 89-123.

돌아나는 새싹의 이미지는 단순한 왕조의 복원이 아니라, 심판의 상처 위에서 시작되는 새 창조를 가리킨다. 빌렘 뷔켄(Willem A. M. Beuken)은 이 연결을 쌍폭 구조(Diptychon)로 설명하며, 본문이 두 시기를 시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제시한다고 보았다.<sup>24</sup>

이러한 관찰은 새로이 지도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단순한 미래적 희망이나 이상적 전망이 아니라, 역사적 단절과 상처의 자리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임을 분명히 한다. 곧 이사야 11장의 영은 몰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심판의 현실 한가운데서 새로운 질서를 열어 가는 창조의 동력으로 제시된다.

이사야 11장 2절의 세 쌍의 영은 메시아적 지도자의 성품과 사역을 지적·정치적·영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의 위에 야웨의 영(יהוה יְהוָה)가 머물 것이니(הָרָץ/나하)  
 곧, 지혜와 총명의 영(חָכְמָה)  
 모략과 재능의 영(מְרֹמָם)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יְהוָה, 사 11:2, 저자사역).

이는 사사나 왕에게 임하여 군사적·행정적 역량을 부여하던 전통적 ‘카리스마적 영’ 이해를 넘어서는 전환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외적 능력이나 일시적 힘에 머물지 않고, 지도자의 내적 성품과 판단,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 있는 통치를 형성하는 원리로 제시된다.

첫째 쌍인 지혜(חָכְמָה/호크마)와 총명(בִּינָה/비나)은 통치자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제시하는 통찰력을 가리킨다. 창

24 W. A. M. Beuken, *Jesaja 1-12* (HThKAT; Freiburg: Verlag Herder 2003), 303.

세기 41장 38-39절에서 바로가 요셉을 평가하는 장면은 이를 잘 보여 준다.<sup>25</sup>

<sup>38</sup>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אלהים)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sup>39</sup>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נבון/나본)하고 지혜(חכם/하참) 있는 자가 없도다(창 41:38-39).

이 본문은 지혜(חכמה)와 총명(בונה)이 단순한 학문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부여되는 지도력과 분별력임을 드러낸다. 차준희는 이를 “새로운 시대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이라 규정하며, 공동체를 이끌어 위기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특별한 은사로 이해한다.<sup>26</sup> 동시에 이 용어들은 지혜문학 전통 속에 자리하며, 메시아적 지도자가 아웨의 지혜를 위임받은 자임을 증언한다.<sup>27</sup>

둘째 쌍인 모략(עצה/에짜)과 재능(גבורה/게부라)은 정책의 구상과 집행 능력을 함께 가리킨다. 에스겔 7장 26절은 공동체 지도 기능의 붕괴를 ‘제사장에게 율법이, 장로에게 책략(עצה)이 없음’으로 표현한다. 민수기 11장 25절에서는 장로들에게 영이 임하여 공동체를 이끌 지혜가 주어지는데, 이는 모략의 의미와 긴밀히 연결된다. 장로에게 임한 영과 관련된 모략은 단순한 전략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25 이 외에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인물로는 요셉뿐 아니라 다니엘 그리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다. 다니엘은 요셉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방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음으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고 인정받는다(단 5:11, 14). 또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주어졌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이다(출 31:3; 35:31).

26 차준희, “하나님의 영: 만민과 자연에 부여되는 영,” 『6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 (서울: 성서유니온, 2020), 223.

27 김정우, “이사야서의 성령론,” 『신학지남』 67 (2000), 138-139.

근거한 정책 수립 능력을 뜻하며, 재능(גְבוּרָה)은 시편과 이사야서의 여러 본문에서 드러나듯 하나님의 영에 의해 부여되는 실질적 힘과 역량을 의미한다. 특히 이사야 28장 6절은 게부라(גְבוּרָה)를 미쉬파트(מִשְׁפָּט)와 연결하여, 이렇게 설명한다.<sup>28</sup>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מִשְׁפָּט וְרוּחַ/루아흐 미쉬파트)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גְבוּרָה/게부라)이 되시리로다  
(사 28:6).

이 구절은 재능이 단순한 인간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여하는 실질적 능력임을 보여준다. 본문은 모략과 재능을 통해 메시아적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지혜로운 분별력뿐 아니라 공동체를 실제로 이끌고 보호하는 능력으로 나타남을 증언한다.

셋째 쌍인 지식(דַעַת/다아트)과 여호와 경외(יְהוָה יִרְאֵת/이르아트 야웨)는 통치자의 영적 성격을 규정한다. 지식은 토라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식이며, 경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과 경건을 뜻한다. 잠언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יְהוָה יִרְאֵת)하는 것이 지식(דַעַת)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이 구절은 지식(דַעַת)과 경외(יְהוָה יִרְאֵת)가 내적 경건과 윤리적 통

---

28 블리쉬케는 이 단어가 시편(시 20:7; 54:3; 65:7; 66:7; 71:16; 89:14; 90:10; 147:10; 150:2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이사야서 안에서도 11:2, 30:15, 63:15에 등장한다고 지적한다. Mareike V. Blischke, "Gottes Geist im Jesajabuch," *Der Geist Gottes im Alt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139.

치의 근거임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메시아적 지도자는 단순히 정책적 식견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인격적 영성을 갖추게 된다.<sup>29</sup> 나아가 이사야 11장의 세 쌍의 영은 모두 ‘머무르다’(מָוַן/누아흐)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도자의 성품을 드러내는 영구적 은사임을 강조한다.<sup>30</sup> 그 결과 피조 세계 전체가 조화와 질서 속에서 회복되고(사 11:6-9),<sup>31</sup>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회 전반에 충만하게 된다(사 11:9).

요약하면,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지적·정치적·영적 영역에서 성숙과 온전함을 갖춘 이상적 통치자의 모습을 제시한다.<sup>32</sup> 이사야 11장의 서술은 앓수르의 몰락과 새 지도자의 출현을 긴밀히 연결하면서, 영이 심판과 구원, 상처와 회복을 동시에 매개하는 원리임을 드러낸다.<sup>33</sup> 더 나아가 이사야 11장 2절의 영은 단순히 외적 힘을 부여하는 수준을 넘어 지도자의 내적 성품을 형성하며, 인간 사회를 넘어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까지 지향한다. 이는 이전 지도자의 영 개념보다 발전된 네 가지 통찰을 보여 준다.

첫째, 본문은 사사·왕에게 임하여 군사적·행정적 역량을 부여하

29 로이드 R. 니브, *윳글*, 113-114.

30 차준희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동사를 중심으로 “상당히 파괴적이고 과격한” 영과 “조용히 임한” 영을 구분한다. 차준희, *윳글*, 221-223.

31 Wonsuk, Ma, “Isaiah,” Burke, Trevor J./Keith Warrington(eds.), *A Biblical Theology of the Holy Spirit* (London: SPCK, 2014), 37.

32 윳글.

33 힐러리 말로우는 특히 사 11:1-9을 사 10:33-34의 ‘베어버림’ 이미지와 연결하여, 잘린 나무가 다시 돌아나는 그림이 단순한 멸망 후의 부활이 아니라 여호와와 가지치기와 정화(pruning)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그루터기(gēza)”라는 번역은 반드시 “죽은 나무의 그루터기”만을 의미하지 않고, 새로 심긴 줄기(사 40:24)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이는 멸망이 아니라 정화 이후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Hilary Marlow, “The Spirit of Yahweh in Isaiah 11:1-9,” Firth, D.G/Wegner, P.D(eds.), *Presence, Power and Promise—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11), 222-223.

던 전통적 ‘카리스마적 영’ 이해를 전환한다.<sup>34</sup> 하나님의 영은 단순히 카리스마적 능력을 부여하는 힘이 아니라,<sup>35</sup> 지도자의 무기를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사 11:4)으로 표현된 지도자의 내적 성숙으로 드러난다.<sup>36</sup>

둘째, 지혜의 표지로 제시되는 ‘야웨 경외’가 하나님의 영과 직접 연결된다. 영의 담지자는 앗수르 왕(사 10:13)과 같은 이방 통치자나 자기 백성의 불의(사 5:8-13)에 맞서는 존재인데, 이는 그 안에 야웨를 경외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다.<sup>37</sup> 따라서 경외는 인간의 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결합하면서 확장된 영의 효력은 새로운 지도자의 통치를 넘어 사회·경제적 공동체와 창조 질서 전반에까지 미친다.<sup>38</sup> 이로써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회복되는 통합적 비전을 선포한다.

---

34 여기서 왕권에 대한 암시 여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대표적으로 마원석은 사 11장을 시 72편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본문을 왕권 신탁으로 해석한다. W. Ma, *윗글* (1999), 34-38. 반면 블리쉬케는 사 7:14과 11:1-5에 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용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본문을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으로 이해한다. M. Blischke, *윗글*, 134.

35 리안 시안 명은 사 11:1-5를 문법적으로 분석하여 영의 역할을 카리스마적과 비카리스마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기존 연구들이 영의 카리스마적 역할에만 초점을 맞춘 점을 비판하며, 영이 지도자의 내적 성품과 야웨 경외의 감정까지 형성함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마원석의 정의를 따라 카리스마적 역할을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 개인을 능력 있게 함”으로, 비카리스마적 역할을 “담지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작용”으로 설명한다. Lian Sian Mung, “The Charismatic and Non-Charismatic Roles of the Spirit in Isaiah 11:1-5,” *AJPS* 26/1 (2023), 103-104, 특히 각주 3.

36 W. Ma, *윗글* (2014), 37.

37 M. Blischke, *윗글*, 137.

38 H. Marlow, *윗글*, 229-231.

## 2) 정의를 수행하게 하는 영: 겸손한 종 위에 머무는 영(사 42:1, 5)

이사야 42장은 11장의 흐름을 이어받아, 메시아적 통치자에게 임한 영과 종에게 주어지는 영을 하나의 신학적 맥락으로 연결한다. 앞선 11장이 이새의 줄기에서 돋은 새싹 위에 임한 영을 통해 이상적 왕의 성품과 통치를 묘사했다면, 이제 42장은 하나님의 종 위에 부여된 영을 통해 창조와 구원, 그리고 정의의 사명을 드러낸다.<sup>39</sup>

이사야 42장 1-4절 ‘종의 위임’<sup>40</sup>은 11장 1-5절과 함께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영의 신학적 축을 이룬다.<sup>41</sup> 이사야 11장 1-2절의 새싹-왕 위에 머무는 영이 지혜와 경외의 통치를 세우듯, 42장 1절에서도 “나의 종”에게 “나의 영”(אֲנִי/루히)이 주어져 열방에 정의를 세우게 된다.

여기, 나의 종, 내가 붙들어 주는 자  
내가 선택한 자, 나의 생명(חַיִּים/나프쉬)이 기뻐하는 자  
내가 나의 영(אֲנִי/루히)을 그에게 주었은즉(אֲנִי/나타티)  
그가 열방에 정의를 베풀게 하리라(사 42:1, 저자사역).

여기서 “나의 영”을 받은 아웨의 종은 온 세계에 정의를 세우는 사명을 받는다. 두 본문 모두 하나님의 영이 선택된 인물에게 주어지지만, 11장의 인물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왕으로서 왕권적 이미지를 지니는 반면, 42장의 인물은 “종”으로 묘사되며 겸손과 온유 가운데 사역을 수행한다(사 42:2-4). 그럼에도 두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물을 세우고, 지혜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9 Marvin A. Sweeney, *Isaiah 40-66* (FOT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6), 74.

40 Joseph Blenkinsopp, *Isaiah 40-55* (AB 19A; New York: Doubleday, 2002), 9.

41 T. Uhlig, *윳글* (2025), 288.

다음의 이사야 42장 5절은 창조주 야웨가 모든 인류에게 호홉과 영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야웨,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  
땅과 온갖 싹을 밟아늘린 분  
그 위에 사는 백성에게 호홉(חֹֿחַם/네사마)과  
그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영(רוּחַ/루아흐)을 주시는(נָתַן/노텐) 분(사  
42:5, 저자사역).

곧 1절의 ‘구원의 영’과 5절의 ‘창조의 영’이 대구를 이루며, 창조와 구원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 안에 결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sup>42</sup> 1절의 “중”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 모두를 포함할 수 있고, 5절의 보편적 선언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 범위에서 작동함을 시사한다. 즉, 창조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새 창조와 정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감을 보여준다.

영의 수신자 측면에서도 두 본문은 신학적 연속성을 가진다.<sup>43</sup> 이사야 11장 2절의 인물은 지혜와 공의로 약자를 돌보는 지도자로 세워지며,<sup>44</sup> 이는 육체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름으로 가능한 것이다. 한편 42장 1절의 수신자는 “나의 중”으로 불리는데, 이는 특정 지

---

42 사 42:5의 루아흐는 “호홉”과 병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니브의 용례 분류를 참고하라. 니브, 윗글, 254-260. 특히 ‘인간의 영’은 256.

43 사 42:1-9의 중을 왕 또는 예언자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는 T. Uhlig, 윗글 (2009), 151-152을 참고하라. 그리고 사 11장과 사 42장의 영 담지자의 직접적인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Blischke, 윗글, 141-142를 참고하라.

44 W. Ma, 윗글 (1999), 207-210. 마원석은 이것을 구약 영성 이해의 발전으로 본다.

도사일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일 수도 있다.<sup>45</sup> 그러나 42장 5절의 진술에 따르면 야웨는 “땅에 사는 모든 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므로, 영의 임재는 특정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호홉과 영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보편성을 내포한다.

울리히는 이사야 42장을 “완고함” 주제를 해석하는 데서 매우 핵심적인 본문으로 제시한다.<sup>46</sup> 그는 1-9절과 18-25절을 연결된 문맥으로 읽으며, 전자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영의 선포이고, 후자는 백성의 완고한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본다. 즉, 야웨는 종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지만, 백성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는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단절된 소통을 새롭게 여신다는 신학적 장치로 기능한다.<sup>47</sup>

1-9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단순한 능력 부여가 아니라, 창조 질서와 구속사 속에서 새롭게 열리는 의사소통의 매개이다. 영은 종에게 주어져 약자를 보호하고 열방에 정의를 선포하는 능력으로 작용한다.<sup>48</sup> 이 영은 왕적 카리스마 전통을 계승하지만, 단순히 정치적 권위나 군사적 힘을 뒷받침하는 힘이 되기보다,<sup>49</sup> 창조의 근원에 결부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이다.

그러나 18-25절의 백성은 “많은 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20a절), “귀를 열어도 듣지 못하며”(20b절),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25절)고 묘사된다. 시각·청각·이해력의 전면적 마비가 일어난

45 '하나님의 종'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 Blenkinsopp, *윳글* (2002), 118-120.

46 T. Uhlig, *윳글* (2009), 144-188.

47 T. Uhlig, *윳글* (2025), 292.

48 윳글, 299-300.

49 참고. 삼상 9-11장; 16장; 18-19장.

상태이며, 인식 자체가 차단된 완고함이 진단된다. 이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총체적 마비다.<sup>50</sup> 율리히의 해석에 따르면,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종을 세우시고, 그에게 영을 주어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여신다.<sup>51</sup>

따라서 이사야 42장은 모순된 두 단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완고한 백성의 닫힌 감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과정을 함께 보여준다. 하나님은 종에게 “내 영을 주었다”(1절)고 선언하시며, 그를 통해 열방에 정의를 세우신다(4절). 이어지는 6-7절은 시각의 회복(맹인의 눈을 밝힘), 사회적 억압의 해방(감힌 자를 감옥에서 인도함)을 약속하며, 8-9절은 청각과 이해력의 갱신을 전제로 새로운 일을 알리신다. 이는 영이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인식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근원적 힘임을 드러낸다.<sup>52</sup>

결국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의 영은 호흡처럼 모든 생명에게 주어졌으나(5절), 위기와 단절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은사로 드러나 인간을 새롭게 빚어내는 회복의 힘이 된다.<sup>53</sup> 영은 종에게 부어져 정의와 평화를 세우게 하고, 동시에 백성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한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 회복이 아니라 언약과 구원이 새롭게 실현되는 사건이다(사 42:6).

결론적으로,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의 영은 종 개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아니다. 영을 통해 야웨의 구원 행위 전체가 드러나며, 백성과 열방을 향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종에게 주어진 영은 눈을 밝히고, 귀를 열며,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50 T. Uhlig, *윗글* (2009), 145-162.

51 *윗글*, 187.

52 W. Ma, *윗글* (1999), 110-112.

53 T. Uhlig, *윗글* (2025), 299-300.

동시에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보편적 힘으로 제시되어, 창조와 구원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짐을 보여 준다. 곧 창조의 시작에서 새 창조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관통하는 근본 원리로 드러나는 것이다.

나아가 이사야 42장의 영은 11장의 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미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돋은 새싹 위에 임한 영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의 영으로 지도자를 정의와 공의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 결과 메시아적 통치 아래 살롬의 창조질서가 회복된다(사 11:6-9). 이는 단순한 도덕 개혁이 아니라 창조의 회복, 곧 에덴의 회복을 암시하며, 그 매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11장의 영이 이상적 왕의 성품과 사회적 통치를 형성했다면, 42장의 영은 종에게 주어져 열방에 정의를 세우고, 완고한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두 본문은 별개의 신학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다른 차원에서 조명한 것이다.

이 연속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더 이상 특정 인물의 카리스마나 일시적 은사로 한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sup>54</sup> 이사야 11장과 42장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은 왕과 종 모두를 세우시는 원리이자, 창조와 구원, 정의와 평화를 완성하시는 능력으로 드러난다.

### 3) 언약을 보증하는 영: 영과 말씀(사 59:21)

이사야 59장 21절은 56-66장의 전환점에서 선포된 야웨의 언약 선언이다.<sup>55</sup> 앞선 59장은 죄악으로 인한 상처와 단절을 고발하지만(1-15절), 이어지는 16-20절에서 야웨는 스스로 구속자로 임하여 백성

54 마원석은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부여하는 것(empowering)”보다는 “능력을 빼는 것(depovering)”과 관계되었다고 말한다. W. Ma, 윗글 (2014), 38.

55 M. Sweeney, 윗글, 285-296.

을 구원하고 공의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1절은 그 약속을 언약으로 확증하며, 상처 입은 공동체를 통합하고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이사야 40-55장에서 이미 예고된 새 언약과 구원의 성취를 암시하며, 이후 전개될 시온의 영광 회복 예언(60장 이후)의 토대를 놓는 역할을 한다.<sup>56</sup> 본문의 핵심은 언약의 두 축인 영과 말씀이 세대적 연속성 속에서 공동체를 영원히 묶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나, 이것이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니, 야웨께서 이르시되  
 네 위에 있는 나의 영(רוּחִי/루히) 그리고 네 입에 둔 나의 말(דְבָרִי/드  
 바라이)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부터 영원하도록(사 59:21, 저자사역).

여기서 “너”는 20절의 회개한 남은 자, 곧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집합적 단수로 이해된다. 언약은 단순히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후손의 입술과 영혼에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특정 지도자에게만 머무는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그 후손에게 확장되는 영원한 동행으로 나타난다. 이는 11장에서 새싹-왕 위에 임한 영, 42장에서 종에게 주어진 영이 이제는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sup>57</sup>

또한 “네 입에 둔 나의 말”은 단순한 계시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가리킨다. 이사야 45장 23절은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

56 Joseph Blenkinsopp, *Isaiah 56-66* (AB 19B; New York: Doubleday, 2003), 195-196.

57 M. Blischke, *윳글*, 185.

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증언하며, 말씀을 실체적이고 영속적인 능력으로 제시한다(참고. 사 9:8; 40:8; 55:11).<sup>58</sup> 이사야 59장 21절은 이러한 말씀 신학을 계승하면서, 말씀을 공동체 내부에 내재화한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한 선포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전승과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이 약속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 주리니”(사 44:3)라는 말씀과도 연결되며, 영과 말씀의 결합이 언약적 확증으로 자리 잡는다.<sup>59</sup>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드러난다. 곧 영과 말씀의 결합은 창조 때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두 가지 역동적 임재 방식인 ‘주의 영’과 ‘주의 입의 말씀’의 회복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울리히는 59장 19-21절을 “완고함의 역전”과 연결한다.<sup>60</sup> 야웨의 영이 대적을 막아내는 장면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드러내며(19절), 21절에서는 그 영이 백성 전체와 그 후손에게 머물러 말씀과 더불어 ‘관계적 정의’를 영구히 유지하게 한다. 마원석 또한 영과 말씀이 공동체 전체를 묶는 두 축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본다.<sup>61</sup>

결론적으로 이사야 59장 21절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결합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장면을 제시한다. 이 언약은 영을 통해 내적 변

58 블리쉬케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결합된 영원한 언약으로 보며, 이는 제2이사야의 전승(특히 사 44:3의 영 약속)을 계승하면서, 포로 이후 공동체에게 확장된 언약의 보증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윗글, 186.

59 Antti Laato, *About Zion I Will Not Be Silent: The Book of Isaiah as an Ideological Unity* (ConBOT 44;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98), 167-168.

60 T. Uhlig, 윗글 (2009), 268-271.

61 마원석은 사 59:21의 언약이 야웨의 영과 말씀을 통한 예언이 이스라엘 안에서 영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한다(예: 율 2:28-29). 그러므로 그는 이 언약을 램 31:31-34(겔 36:27도 포함)의 새 언약이 아니라, 학 2:4-5과 같은 옛 언약의 성취라고 주장한다. W. Ma, 윗글 (1999), 134-136.

혁을 일으키고, 말씀을 통해 외적 규범을 세우는 방식으로 지속된다. 동시에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전승될 것을 약속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이 영원히 유지될 토대를 제공한다.<sup>62</sup> 곧 야웨의 영과 말씀이 영구히 함께함으로써,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곧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고, 흩어지고 상처 입었던 백성이 다시 통합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11장과 42장에서 나타난 영의 사역은 공동체 차원으로 확대되며, 61장에서 그 영은 상처와 분열 속에서 구체적인 치유와 해방으로 나타날 것을 예고한다.

#### 4) 공동체를 치유하고 재구성하는 영: 영과 기름부음(사 61:1)

<sup>1</sup>주 야웨의 영(יְהוָה אֱלֹהֵינוּ רוּחַ יְהוָה/루야호 아도나이 야웨)이 나의 위에 계시니  
야웨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도록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도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도록  
<sup>2</sup>야웨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도록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도록  
<sup>3</sup>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두도록  
그 재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도록  
그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주도록)  
약한 영혼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공의의 상수리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야웨가 심으신 것!(사 61:1-3, 저자사역).<sup>63</sup>

62 최윤갑, 율글, 158-159.

63 개역개정에는 다소 불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과 기름 부음으로 수행되는 사역을 여섯 개의 부정사(“전하도록, 사매도록, 선포하도록, 위로하도

이 본문은 60-62장의 회복 선포 중심부에 놓여 있으며, 포로기 이후 시온 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제시된다.<sup>64</sup> 앞선 59장 21절에서 야웨는 자신의 영과 말씀을 언약으로 주어 후손에게까지 지속되게 하셨는데, 61장은 그 약속된 영이 역사 속의 상처와 분열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59장에서 영과 말씀이 언약의 지속성을 보증했다면, 61장에서는 동일한 영이 치유와 해방의 능력으로 현현한다.

구조적으로 이사야 61장 1-3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야웨의 영이 종에게 임하여 사역의 근원을 제시한다(1a절). 둘째, 종의 사역을 통해 가난한 자, 상한 마음을 지닌 자, 포로와 억눌린 자에게 일어나는 운명의 반전이 구체적으로 선포된다(1b-3a절). 셋째, 이 사역의 결과로 그들이 ‘공의의 상수리나무들’이라 불리며 새로운 공동체적 정체성을 획득한다(3절). 즉, 영의 임재에서 사역의 전개, 그리고 공동체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논리적 흐름이 드러난다.<sup>65</sup>

본문은 단순히 추상적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회복을 선언한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1절)라는 선언은 영의 임재가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위임임을 강조한다. “야웨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표현은 왕·제사장·예언자를 세울 때 행하던 의식을 연상시키며, 영의 임재와 사명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sup>66</sup> 따라서 61장의 화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기름부음을 받은 담지자이다.

---

록, 두도록, 주도록)와 그 사역의 결과를 강조하는 일곱 번째 동사(“불릴 것이다”)로 분명히 나타낸다.

64 M. Sweeney, *윳글*, 316-322.

65 최윤갑, *윳글*, 163-164.

66 Bradley C. Gregory, “The Postexilic Exile in Third Isaiah: Isaiah 61 : 1-3 in Light of Second Temple Hermeneutics,” *JBL* 126/3 (2007), 480.

그가 받은 사명은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직접 향한다. 여기서 구원은 추상적 영적 경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치유와 해방으로 구체화된다. 포로기 이후의 예루살렘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분열, 영적 낙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 취약한 지점에서 회복을 시작한다.<sup>67</sup> 이는 하나님의 영이 단지 개인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세우는 힘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유”(חֵירוּת/드오르)는 희년 전통을 반영하는 신학적 핵심어이다. 이 단어는 성서 전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며(레 25장, 렘 34장, 겔 46장, 사 61장),<sup>68</sup> ‘빛에서의 해방, 종의 해방, 땅의 회복’을 모두 포함한다. 그레고리는 이 단어가 포로-귀환 신학과 희년 해방 신학을 결합한다고 분석한다.<sup>69</sup> 따라서 이사야 61장의 해방 선포는 단순한 은유적 자유가 아니라, 희년 전통을 계승하여 실제적이고 경제적·사회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한다. 이는 포로기를 빛 노예 상태로 묘사한 이사야 40장 2절의 관점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sup>70</sup>

3절의 “공의의 상수리나무들”이라는 비유는 회복의 결과가 개인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으로 확장됨을 보여 준다. 상수리나무는 깊은 뿌리와 지속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며,<sup>71</sup> 회복된 공동체가 단순한 위로에 그치지 않고, ‘공의’라는 기준 위에 세워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체가 됨을 의미한다. 앞선 1장에서 말라버린 상수리나무가 교만과 우상숭배의 상징이었다면, 61장에서는 야웨의 영이

67 윗글, 482-483.

68 John J. Collins,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390.

69 B. C. Gregory, 윗글, 484-485.

70 제2이사야는 포로기를 죄로 인한 빛 노예 상태로 묘사한다(사 40:2; 렘 16:18). 사 61:7에서 “갑절의 분깃”을 약속하는 것은 사 40:2의 언어를 환기시키며 희년 사상과 연결된다. B. C. Gregory, 윗글, 485.

71 C. Westermann, *Isaiah 40-66: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69), 367.

부은 기름과 단비로 인해 새롭게 돌아난 ‘공의의 숲’으로 전환된다.<sup>72</sup>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가리킨다.

또한 “공의의 상수리나무들”이라는 공동체적 비유는 개인의 도덕적 의로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언약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공동체 내부에서 상호 책임과 정의를 실천하게 한다.<sup>73</sup> 따라서 이사야 61장의 영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의 원리로 작동한다. 이는 오늘날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사회적 약자와 억눌린 자를 향한 구체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할 윤리적 요청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사야 61장의 메시지를 단순히 신약에서의 메시아 예언으로만 읽는 것은 제한적이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셨다는 사실은 분명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지만, 본문이 처음 선포된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놓임”을 선포하는 일은 당시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행위였다.<sup>74</sup> 따라서 본문은 신약적 재해석과 더불어,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사회·경제적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61장 1-3절은 야웨의 영이 포로기 이후 분열되고 상처 입은 공동체 속에 임하여, 치유와 해방, 그리고 공의의 회복을 이루는 장면이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메시아 왕(11장), 야웨의 종(42장), 선포자(61장)는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된다. 영은 심판과 구원,

---

72 J. Blenkinsopp, *윳글* (2003), 226.

73 T. Uhlig, *윳글* (2025), 304-305.

74 Johannes Bremer, *Wo Gott sich auf die Armen einlässt: Der sozio-ökonomische Hintergrund der achämenidischen Provinz Jehud* (BBB 174; Göttingen: V&R Unipress, 2016), 313-315.

상처와 회복을 동시에 매개하는 원리이다.<sup>75</sup>

여기서 이사야 59장 21절과 61장 1-3절의 연관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6</sup> 59장 21절이 영과 말씀을 통해 언약의 지속성을 보장했다면, 61장 1-3절은 동일한 영이 상처 입은 현실을 치유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통합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사야 영 신학은 메시아 왕과 종, 선포자의 사역을 넘어, 언약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의 비전으로 확장된다.<sup>77</sup> 결국 이사야 61장은 지도자에게 임한 영 신학의 절정으로, 오늘날 독자에게도 사회적 약자와 억눌린 자를 향한 책임, 그리고 ‘공의의 나무들’로 서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적 정체성의 갱신을 촉구한다.

#### 4. 지도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신학적 의미

네 본문은 모두 ‘지도자에게 임한 영’을 말하지만, 영의 작동 방식은 한 인물의 카리스마에 고정되지 않고 본문군 안에서 확장·재배치된다. 이사야 11장에서 영은 이새의 줄기에서 돋는 싹 위에 “머무는” 영으로 제시되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위한 정의의 실현과 연결된다(11:1 이하). 이사야 42장에서는 영이 종에게 주어져 정의를 세우는 사명과 결속되는 동시에, 창조주가 모든 생명에게 호흡과 영을 주신다는 선언(42:5)과 맞물려 영의 범위를 보편적 지평으로 열어 둔다. 이사야 59장은 영을 “내 언약”으로 제시하며, 영과 말씀이 세대적 연속성 속에서 공

75 M. Blischke, *윳글*, 183-184.

76 T. Uhlig, *윳글* (2025), 317-318.

77 이사야, “하나님의 영과 신인식-이사야와 에스겔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2 (2016), 53.

동체를 붙드는 구조를 전면에 둔다.

이 흐름 속에서 이사야 61장은 59장과 마찬가지로 중심 명사 루아흐(רוּחַ, rûah)가 동반 동사 없이 제시되며, 1인칭 “나”의 발화 역시 특정 개인이라기보다 집단적·개인적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78</sup> 이사야 61장 1-3절은 여섯 개의 부정사 연속으로 영을 보유한 자의 사회적 임무를 구체화하고(사 42:7; 49:5-6, 8-9; 50:4 참조), “야웨의 심은 것” 곧 “의의 상수리나무들”을 통해 공동체의 신분 전환이 야웨의 영광과 연결됨을 제시한다(61:3). 따라서 61장의 영은 종 전승의 기능을 이어받으면서도, 과송과 기름부음의 언어를 통해 정의·치유·해방의 과제를 귀환 이후 현실 공동체 안에서 수행하도록 배치된다.

그러므로 네 본문은 영의 머무름(11장)-위임과 사명(42장)-언약의 세대적 지속(59장)-현실 공동체의 신분 전환과 치유·해방(61장)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연속적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61장에서는 이 과제가 특정 대제사장에 대한 전기적 정당화로 환원되기보다, 권위와 책임의 중심이 ‘시온’으로 옮겨지는 문헌적 구성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결과 시온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과 상한 자들을 향한 사회·윤리적 의제를 수행하는 주체로 제시된다.<sup>79</sup> 이처럼 “지도자에게 임한 영”은 한 개인의 능력 부여에 머물지 않고, 시온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치유의 과제를 수행하고, 언약의 언어 속에서 세대와 세대로 지속되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

78 Jakub Slawik, “Exegesis of the Book of Isaiah 61:1-11: Redaction Criticism and Inquiry into the Identity of the Prophet Known as Trito-Isaiah,” *Collectanea Theologica* 90/5 (2020), 270-272, 288-289.

79 U. Berges, *Jesaja 55-66* (HThKAT; Freiburg: Verlag Herder, 2022), 392-393.

## 5. 나가는 말

이사야서의 영 신학은 단순히 과거의 본문 주석적 논의를 넘어, 오늘날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사회 전체를 향한 신학적 성찰을 요청한다. 본 연구는 이사야서의 네 본문(사 11:2; 42:1, 5; 59:21; 61:1)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성품을 빚는 영’, ‘정의를 세우는 영’, ‘언약을 보증하는 영’, ‘공동체를 치유하고 재구성하는 영’으로 종합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단순한 능력 부여나 카리스마적 권능으로 환원하지 않고, 지도자의 내적 성숙과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그리고 창조와 구원이 결속된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가 주로 11장, 42장, 61장을 중심으로 영을 리더십과 연결하여 이해한 데 반해, 본 연구는 59장 21절을 핵심적으로 포함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결합하여 세대에 걸쳐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언약적 능력임을 부각하였다. 이를 통해 이사야서의 지도자에게 임한 영이 개별 인물의 카리스마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이고 관계적인 신학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영의 사역을 비(非)카리스마적 차원까지 확장하여, 지도자의 인격과 공동체의 책임 윤리를 형성하는 근원적 힘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는 이사야서 영 신학을 보다 풍성하고 통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도자에게 임한 영을 단순히 카리스마적 권능으로 이해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지도자의 내적 성품과 공동체적 책임을 형성하는 비(非)카리스마적 이해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창조와 구원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영이 창조의 시작에서 새 창조의 완성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임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사야서의 영 신학은 창조와 구원을 분리된 두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하나님의 행위로 통합한다. 창조의 시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은, 정의와 치유, 해방을 통해 상처 입은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 가며,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영의 역할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게 한다.

오늘날 분열과 불의, 상처가 깊어진 현실 속에서, 이사야서의 지도자에게 임한 영 신학은 학문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사회적 실천을 요청하는 신학적 자원이 된다. 하나님의 영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향한 책임을 환기하며, 지도자와 공동체 모두가 정의와 평화를 향해 응답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사야서의 영 신학을 구조적으로 재구성하고, 특히 사 59장을 포함함으로써 언약과 공동체의 지속성이라는 차원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이사야서 영 신학의 내적 통일성과 확장성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구약 성령론 연구와 교회의 신학적·윤리적 성찰에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도형. “구약의 루아흐(*ruah*)와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의 중요성.” 『구약논단』 94 (2024): 48-72.
- 김정우. “이사야서의 성령론.” 『신학지남』 67 (2000): 117-145.
- 로이드 R. 니브. 「구약의 성령론」. (차준희/한사무엘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원저 Neve, L.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okyo: Seibunsha, 1972).
- 윌프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 신학 입문」. (김진섭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5). 원저 Hildebrandt, W.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5).

- 이사야. “하나님의 영과 신인식-이사야와 에스겔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2 (2016): 44-69.
- 차준희. “하나님의 영: 만민과 자연에 부여되는 영.” 「6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 (서울: 성서유니온, 2020): 205-238.
- 최윤갑.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와의 영이 행한 사역의 목적: 메시아 사역자 본문 (11, 1-5; 42, 1-4; 61, 1-3)을 중심으로.” 「구약논집」 15 (2019): 136-174.
- Abernethy, Andrew T. *The Book of Isaiah and God's Kingdom*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6).
- Berges, Ulrich. *Jesaja 55-66* (HThKAT; Freiburg: Verlag Herder, 2022).
- Beuken, Willem A. M. *Jesaja 1-12* (HThKAT; Freiburg: Verlag Herder, 2003).
- Blenkinsopp, Joseph. *Isaiah 40-55* (AB 19A; New York: Doubleday, 2002).
- \_\_\_\_\_. *Isaiah 56-66* (AB 19B; New York: Doubleday, 2003).
- Blishcke, Mareike V. “Gottes Geist im Jesajabuch.” *Der Geist Gottes im Alt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93-190.
- Brown, William P. *The Ethos of the Cosmos: The Genesis of Moral Imagination in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remer, Johannes. *Wo Gott sich auf die Armen einlässt: Der sozio-ökonomische Hintergrund der achämenidischen Provinz Jehud* (BBB 174; Göttingen: V&R Unipress, 2016).
- Collins, John J.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Dreytza, M. *Der theologische Gebrauch von RUAH im Alten Testament: Eine wort- und satzsemantische Studie* (Dasel: Brunnen, 1992).
- Felber, Stefan. “Wer Spricht in Jesaja 61,1-3?” *Jahrbuch Für Evangelikale Theologie* 25 (2011): 89-123.
- Gregory, Bradley C. “The Postexilic Exile in Third Isaiah: Isaiah 61:1-3 in Light of Second Temple Hermeneutics.” *JBL* 126/3 (2007): 475-496.
- Koch, R. *Der Geist Gottes im Alten Testament* (Frankfurt am Main u.a.: Peter Lang, 1991).
- Laato, Antti. *About Zion I Will Not Be Silent: The Book of Isaiah as an Ideological Unity* (ConBOT 44;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98).
- Levison, John R. *Filled with the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2009).
- Lian Sian Mung. “The Charismatic and Non-Charismatic Roles of the Spirit in Isaiah 11:1-5.” *AJPS* 26/1 (2023): 103-121.

- Lys, D. *'Ruach,' Le souffle dans l'Ancien Testament: enquête anthropologique à travers l'histoire théologique d'Israël* (Etudes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56;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 Ma, Wonsuk. *Until the Spirit Comes: The Spirit of God in the Book of Isaiah*. (JSOTSup. 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_\_\_\_\_, "Isaiah," Burke, Trevor J./Keith Warrington(eds.). *A Biblical Theology of the Holy Spirit* (London: SPCK, 2014): 34-45.
- Marlow, Hilary. "The Spirit of Yahweh in Isaiah 11:1-9." Firth, D.G/Wegner, P.D(eds.). *Presence, Power and Promise-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11): 220-232.
- Carlson, R. "Ruah in the Hebrew Bible: A Survey of Past Scholarship." *CBR* 22/2 (2024): 115-132.
- Slawik, J. "Exegesis of the Book of Isaiah 61:1-11: Redaction Criticism and Inquiry into the Identity of the Prophet Known as Trito-Isaiah." *Collectanea Theologica* 90/5 (2020): 241-293.
- Sweeney, Marvin A. *Isaiah 40-66* (FOT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6).
- Uhlig, Torsten. *The Theme of Hardening in the Book of Isaiah: An Analysis of Communicative Action* (FAT II/39; Tübingen: Mohr Siebeck, 2009).
- \_\_\_\_\_, "Der Geist Gottes im zweiten Teil des Jesajabuches." Schließer, B./Feldmeier, R./Frey, J./Urech, S. (eds.). *Geist: Phänomenologie-Religions-geschichte-Theologie* (WUZNT; Tübingen: Mohr Siebeck, 2025): 287-321.
- Westermann, Claus. *Isaiah 40-66: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69).
- Wood, L. J.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6).
- Williamson, H.G.M. *Variations on a Theme: King, Messiah and Servant in the Book of Isaiah* (Didsbury Lectures 1997 Carlisle: Paternoster, 1998).

## 주제어

하나님의 영, 루아흐, 이사야서, 지도자의 영, 메시아와 종

[ ABSTRACT ]

**The Spirit in the Book of Isaiah Renewing Leadership  
and Community: A Theological Reading of Isaiah 11, 42, 59,  
and 61**

Joo-Hyun Kim  
Ha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rúah*) in the Book of Isaiah, focusing specifically on texts in which the Spirit is given to a leader or representative figure (Isa 11:2; 42:1, 5; 59:21; 61:1). While previous scholarship has often emphasized charismatic empowerment or messianic leadership — particularly in Isaiah 11, 42, and 61 — this study argues that such approaches remain incomplete without careful attention to Isaiah 59:21 and its covenantal formulation of Spirit and word.

Methodologically, the study adopts a canonical and literary approach, analyzing the relevant *rúah* passages in their final form and in canonical sequence. Rather than treating the Spirit as an abstract concept, the analysis concentrates on texts in which the Spirit is portrayed as given, resting, or remaining with a human subject or community.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verbal constructions, syntactic patterns, and intra-Isaianic connections that illuminate how the role of the Spirit develops across different literary context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se four texts form a coherent theological trajectory: the Spirit rests on the ideal ruler to shape character and just governance (Isa 11); the Spirit commissions the servant for the

www.kci.go.kr

mission of justice in continuity with creation (Isa 42); the Spirit is joined with the word as a covenantal guarantee of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for the community (Isa 59); and the Spirit empowers proclamation, healing, and social restoration within the post-exilic return community (Isa 61). Together, these passages reveal that the Spirit's activity is not limited to individual charismatic leadership but expands toward communal identity, ethical responsibility, and covenantal permanence.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integrating Isaiah 59:21 into the discussion of leadership-oriented Spirit texts, thereby highlighting the Spirit's role in sustaining justice, healing, and communal renewal across generations. This approach offers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saianic pneumatology and provides a theological framework that bridges leadership, community, and covenant within the Book of Isaiah.

#### Keywords

Spirit of God, Rûah, Book of Isaiah, Spirit-Endowed Leadership, Messiah and Servant

투고일 : 2026년 1월 31일

심사일 : 2026년 2월 18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2월 19일

[www.kci.go.kr](http://www.kci.go.kr)